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본격화

인도 삼성공장 방문, 기업과 '보폭 맞추기' 신호탄?

인도·싱가포르 5박6일 순방
박용만 회장 등 경제사절단 동행
오늘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방문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위해 8일 5박6일간의 여정길에 올랐다. 이 날부터 11일까지는 인도,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방문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도와 싱가포르를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로, 양국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루려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더 지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지동성 SK루브리컨츠 대표,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이은 '제2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될 인도에서 정부와

기업인간 교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중에서도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는 경제사절단과 별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만남도 성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삼성그룹의 국내외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중국 순방길에는 현대차 공장을, 국내에서는 LG그룹과 한화그룹 계열사 공장 등을 각각 방문했지만 유독 삼성과는 인연이 없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과 '보폭 맞추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착일인 8일 오후부터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샤르담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도 일정에 들어간다. 인도는 우리보다 3시간 30분 가량 늦다.

이튿날인 9일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계 2위 규모인 인도의 인구가 조만간 1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7%대여서 새로운 터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기업이 인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번 순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

담하는 데 이어 리센룽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MOU(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한다. 한국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한다. 싱가포르 지도층과 여론 주도층 인사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세안의 평화번영과 연결된다는 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성장률 7%... 인도시장 공략 키워드 'I.N.D.I.A'

전경련, 인구 13억명... 세계 2위
정부 개발의지 강해 '인프라' 유망

- I mproving economic indicators 경제지표 개선
N umerous people 풍부한 노동력
D eregulation 규제완화
I nfrastructure 유망한 인프라 시장
A im long-term 장기적 관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주목 받고 있는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로 'I.N.D.I.A'를 제시했다. 'I.N.D.I.A'는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 풍부한 노동력(Numerous people), 규제완화(Deregulation), 유망한 인프라 시장(Infrastructure), 장기적 관점(Aim long-term)의 앞 글자를 따왔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 인구는 13억명으로 세계 2위다.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에 따라 인프라 시장이 유망하다. 다만 전경련은 인도의 복잡한 사회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일 전경련에 따르면 첫째, 인도의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에도 인도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좋은 편이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7%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되고 있고 재정적자는 축소되고 있다. 약 13년 만에 신용등급도 개선됐다. 작년 11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력도 풍부하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IT 전문 인력이 많다.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의 리서치센터가 위치해 있다. 블룸버그는 2020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수시장 역시 유망하다. HSBC은행에 의하면 2018년 인도 중산층은 약 3억 명이며 오는 2025년 5억50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진출에 앞서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는 2017년 100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30위 상승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는 2017년 시행한 세계개혁인 통합간접세 제도가 꼽

힌다. 개편을 통해 주별로 다르게 징수되던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 세율이 통일되고 각 주의 진입세와 통행세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주 간 상품 이동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던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지분투자제한이 철폐되고 별도 정부승인 없이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도는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개발을 추진 중인 인프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정부의 2018-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체의 1/4(24.4%)인 6조 루피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인도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201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6%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1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美 폼페이오-北 김영철 회담
청와대 "첫 술에 배 부르겠냐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 뗐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6~7일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간 회담 결과에 대해 8일 "첫술에 배부르겠느냐"며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이르러려한 곡절이 있었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반면,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했다'고 비난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호 기자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건설시장 선점해야

韓-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방안
무협, 신경제성장 모델 구축 도모

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경제성장 모델 구축과 아세안(ASEAN) 지역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건설을 위해 교통·홈&오피스·헬스케어·핀테크·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의 스마트화를 주도하는 한편 해외 기술 및 혁신기업 유치,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가장 높고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자유도를 지

Table with 2 columns: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분야 내용) and (자료=한국무역협회). Rows include '스마트국가' 프로젝트 분야, 스타트업 분야, 제3국 진출,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시장 선점, 교류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4차 산

닌 국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의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와 민간 컨소시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ujjin6326@